

## [가정의 달 특집] 구원의 이름 '어머니'

이기복 교수 (한동대) / 1999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이름 속에는 희생, 사랑, 안식, 행복, 평안의 내용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머니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어머니 품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는 세상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아기에게 어머니는 절대자와도 같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아기는 하나님을 배우며, 기본 신뢰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속에 사랑의 본능을 심어주셨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을 곁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기에게 젖을 주면서 엄마는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은 주는 것임을 아기 엄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지, 젖먹이 아기의 엄마는 잠시 외출을 해도 온통 아기 생각 뿐입니다. 아기 얼굴이 아른거려서 급히 아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음도, 몸도 아기를 향해 있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어머니는 아기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49:15)"**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 모성도 타락하였습니다.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자녀보다 돈과 쾌락을 택하는 모성도 있습니다. 뱃속의 태아를 선택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이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회복합시다. 어머니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달겠느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빨 것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라(사 66:7)"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또한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사 4:3~4)"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돌보시는 여호와와 사자의 손길에서도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왕상 19)

신약에서도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자녀양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왜곡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이여,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 자녀가 주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어머니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 어머니, 힘들 때 기억나는 이름

우리는 힘들 때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몸이 아플 때나, 절박한 순간, 그리고 투정 부리고 싶을 때는 어머니가 그리웁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의 곁에 있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열에 시달릴 때, 물수건을 계속 갈아주시면서 밤을 지새우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늦게 귀가하는 나를 기다리시며 문밖에 서성거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결혼하여 나도 어머니가 되는 날, 그날에도 나는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어머니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한 작가미상의 시가 떠오릅니다.

###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그리워지는 나이가 되면  
나도 이미 어머니가 되어있다  
항상 무엇이 없어 절실할 때에야  
그 참 모습을 알게 되듯이

어머니가 혼자만 아시던  
그 무게며 빛깔이며 마음까지  
이제야 비로소 선연히  
가슴에 차 오르는 것을,  
넘쳐서 흐르는 것을

가장 좋은 기쁨조차도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던,  
따신 봄별 한오리가도  
자기 몸에는 걸치지 않으셨던

어머니 그 옛전 마음을  
저도 이미 어머니가 된 여인은 알고 있나니  
저도 또한 몸깊이 그 어머니를 갖추고 있나니...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그리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나 실패 시에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나를 믿어 주시는 분, 그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나조차 내 모습에 실망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그럴지 않습니다. 교도소 밖에는 어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살이하는 자녀를 그래도 믿으며, 기다리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기다리는 분은 어머니들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임을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 어머니들이여, 권위를 회복합시다

신약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 충만의 결과,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된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권위와 순종의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줍니다. 요즈음 지나치게 자녀중심이 되거나, 권위 없는 태도로서 자녀에게 질질 끌려가는 어머니들을 보게 됩니다. 참된 자녀양육을 위하여 어머니들은 숭고한 위엄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도 절제와 균형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야 진정한 자녀사랑인 것입니다.

잠언 31장에서는 자식들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사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31:28~30)"

칭찬 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어머니 정신도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능력과 존귀(with strength and dignity)'로 웃입게 됩니다. 그러한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사례를 받게 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듯이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들이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웃 입을시다. 어머니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이름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